

문화특종

김제시 마을변호사 서비스 운영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無辯村) 지역의 법률 구조를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 취약지역을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며,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법적으로 보호 받기에 까다로운 절차나 경제적인 부담감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해 9월 10일 마을변호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0월 26일 첫 시행하여 매월 1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왔다.

올 9월부터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통합 운영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 세무 상담으로 영역을 확대해 지역을 찾아가서 무료상담을 해주는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로 재탄생하게 되며, 언제든지 마을변호사제도 운영일인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담장소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으로 확산시켜 현장 밀착형 상담을 추진한다는 물론, 상담 사례집 등을 제작 배부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노인층이 많은 농촌 실정에 맞는 부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벤처농업대학 체육대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21일 개암사 체력대련공원에서 친 환경 벤처 농업대학 교육생 93명이 참여하는 지혜와 열정 나눔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체육대회는 친 환경 벤처 농업대학 각 과정별 친선 체육경기 등으로 치러졌다.

친 환경 벤처 농업대학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농산물 테마기관, 농촌의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생태체험개발반, 화초류의 농가소득 다원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화훼기초반 등 총 3개 과정으로 1년 간 운영된다.

화훼기초반 과정 교육생 이승구(부안읍)씨는 "벤처 농업대학에서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알찬 교육을 받아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체육대회는 친 환경 벤처 농업대학인들이 지혜와 열정을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라며 "건강한 농업생태계 유지와 안전농산물 가공 및 농가소득 지원 개발을 위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한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이란 농업부차관 사업현장 소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지난 20일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이란 이바스 케사비르즈 농업부차관 등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을 소개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안내했다.

이번 방문은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업체인 IS엘트론의 요청으로 방한한 농업부차관 일행에게 새만금사업 등 국내 대대위 사업현장의 선진 농업기술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새만금홍보관과 신시33센터를 둘러보며 새만금 사업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배수감분 운영을 통한 홍수 예방, 첨단농산업 조성 등 복합적 용도로 개발중인 새만금 개발계획을 설명 들었다. 한편 이란은 전체 농지 중 30%만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관개(灌漑)시설이 가능한 실정이라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다양한 컨셉으로 조성된 허수아비 테마존은 한 달여간 읍면동 직원들과 주민들이 하나기 되어 아이디어를 모으고 소품을 준비해서 직접 허수아비를 만들고 설치하여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탄생되었다.

지평선축제 허수아비로 홍보

'월کم투 허수아비 빌리지' 벽골제 행사장 비록 고속도로 IC입구·주요도로변에 조성

대한민국 대표축제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허수아비 테마존 '월کم투 허수아비 빌리지'가 벽골제 행사장을 비롯한 고속도로 IC 입구와 주요도로변에 조성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다양한 컨셉으로 조성된 허수아비 테마존은 한 달여간 읍면동 직원들과 주민들이 하나기 되어 아이디어를 모으고 소품을 준비해서 직접 허수아비를 만들고 설치하여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탄생되었다.

이들 허수아비 테마존은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절연휴 전에 설치되었으며, 읍면동 설화와 농촌의 정, 울메 이슈를 담아 해학과 풍자로 즐거운 웃음거리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포토존 장소로도 손색이 없어 추석에 그리운 고향과 벽골제를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금년 읍면동별 허수아비 작품 테마는 전통적인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테마외에도 다가오는 개천절을 기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민족의 정서를 표현하고 울메 개최되었던 세계인의 축제 리우올림픽을 우리 문화와 접목해 색다른 모습으로 재현하였으며 새만금의 중심 도시로서의 김제시의 위상을 알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축제에 참여하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만드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읍면동별로 출품된 허수아비 테마존 19개소에 대한 우수작품 심사가 이루어졌다. 전체 19개 작품 중에서 전통농어를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교월동의 '차천놀이 한마당'이 영예의 대상

수상하였으며 서민들의 흥겨운 놀이 모습을 표현한 봉남면의 '한마당 각설이와' 리우올림픽에서의 열정과 감동이 지평선 축제에서 지속된다는 감정을 표현한 요촌동의 '뜨거운 열정, 감동의 순간을 지평선축제에서도 주욱~'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우수상으로는 공덕면, 성덕면, 금산면, 광활면이 장려상으로는 민영읍, 백구면, 진봉면, 황산면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은 김태한 교월동장은 바쁜 업무와 일상 생활 속에서도 직원과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허수아비 제작에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셔서 명실상부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김제지평선 축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어 기쁨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앞두고 식품안전 사전 점검

부안군이 오는 10월 열리는 제10회 곰소젓갈발효축제의 성공을 개회하려고 식품안전 사전 점검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은 제10회 곰소젓갈발효축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 진서면 곰 소다용도부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위생적인 젓갈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청정해풍을 머금은 신선한 젓갈류를 천일염으로 빚어 전국의 식도락가들이 즐겨 찾는 매년 개최 되는 곰소젓갈발효축제는 부안의 대표 먹거리인 젓갈을 홍보하고 젓갈식품산업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축제 성공 개회를 위해 젓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과 친절미인도 향상을 위해 '3無 3有 운동'의 적극 동참을 유도기로 했다.

특히 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3無 3有 운동은 불친절·바가지요금·원산지미표시는 없애고 맛(味)·정(情)·복(福)이 넘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군은 위생적 젓갈 제조·판매·유통을 위한 영업주·종사자 위생관리, 원료·제품 적정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

과제품 진열·보관·판매 등 영업주들이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을 확인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젓갈을 제조·판매토록 위생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곰소젓갈발효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함께 영업주들의 3無 3有 운동 동참을 적극 당부드린다"며 "축제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단복(扶來斷福)'의 고장 부안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내달 4일부터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보건소와 지정 병·의원에서

정읍시보건소는 10월 4일부터 65세 이상(1951년생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12일부터)뿐만 아니라 지정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정병·의원 접종은 4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올해 지정된 병·의원은 50개소로 작년보다 13개소가 더 늘었다. 한편 보건소 접종은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로 접종 장소를 지정했다. 시기동과

상고동, 농소동, 수성동, 연지동은 보건소이고, 내장상동과 장명동, 초산동은 생골보건지소이다. (*읍면지역은 해당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일정에 따라 다르다.)

또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이외 무료 접종 대상인 기초생활수급(1.2종)자 중(만15세 이하·50세 이상·12개월~2001년생까지, 1966년생부터)과 국가유공자(본인), 리.통장(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인도 접종한다.

이와 함께 12개월 이상·미취학아동(2010년생까지)은 14일부터 17일까지

정읍초산동주민센터, 초산사랑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가져

정읍시 초산동주민센터는 지난 20일 10명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2명에 위

촉장을 수여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신춘만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산사랑 작은 도서관의 내실

집중한다. 무료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인 등은 관련 서류)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 유료 접종(일반시민)은 18일부터 약품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보건소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경우 세균성 폐렴이나 기존의 만성질환 악화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다"며 "65세 이상노인, 12개월~59개월 소아, 만성질환자, 사회복지시설생활자, 국가유공자 임신부 등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 동민들이 불편 없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네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해결, 그리고 소통의 공간이자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2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탄생

상희금융 오채용 대표, 고액기부자 모임 합류

김제시 출향인사인 (주)상희금융 대표 오채용(62)씨가 21일 시민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갖고 2호 회원이 된다. 이날 가입식은 김제시에서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종성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패 전달식을 갖는다.



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오채용 회장은 "나눔은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지도층

김제시 청하면이 고향인 오채용 대표는 '아너소사이어티' 가입하기 이전부터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리 없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날 김제시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게 전달해 달라며 3,000만원을 지정 기탁하였고 이 밖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하여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1,000만원을 올해 2월 김제시 장학재단에 전달하는 등 다

들의 나눔 참여가 단순히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로 모든 사람이 나눔의 기쁨을 오래도록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세대도 상당히 많은데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회지도층들이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에 동참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치매예방과 인식개선 나서

정읍시보건소, 교육 등 실시

급속하게 초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보건소가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2014년도 9.58%, 2015년도 9.79%, 2016년도 9.99%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정읍시 65세 이상 2만8천195명(16.8월말 기준)중 치매 노인은 2천816명으로 추정된다.

보건소는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10명중 4명은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보다 치매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치매는 당사자나 한 가정민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찾아가는 치매예방과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23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달부터 입암면을 시작으로



해당지역을 순회하며 외부강사 또는 치매상담사를 활용, 교육과 홍보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2일부터는 치매환자 돌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가족지원프로그램인 '헤어리교실'을 운영, 치매에 대한 경험 공유와 상호 지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헤어리교실'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매주 주 2회(화, 목),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등 이론교육과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미술요법, 수공예 활동, 원예활동, 마음치유 등)으로 운영된다.

치매 관련 전문가는 "치매는 조기에 진료를 받을수록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태인 방각본의 탄생 배경과 위상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해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중간 중간에 판소리 한 대목을 열창하여 흥미를 돋울 예정이다.

정읍시립박물관 '태인 방각본 토크쇼'

27일, 판소리와 해설이 함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정읍시립박물관의 기획특별전 '조선출판문화의 관동라, 태인 방각본'(전시기간 : 9.6~11.6)에 대한 면면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시에 대해 많은 저술을 편찬한 유종국 전북과학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태인 방각본의 탄생 배경과 위상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해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중간 중간에 판소리 한 대목을 열창하여 흥미를 돋울 예정이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조선 후기에 독서 열풍을 일으켰던 태인 방각본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소중한 기록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박물관(http://museum.jongseu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